

'도시어부' 3개월만에 목요일예능 최강자...힐링의 힘!

(채널A)

4.1% 자체 최고 시청률...지상과 예능 제쳐 이덕화 이경규 마이크로닷 조합 기대 이상

종합편성채널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가 지상과 경쟁 프로그램을 압도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도시어부)는 연예계 베테랑 이덕화와 이경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가수 마이크로닷을 내세워 낚시라는 소재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9월7일 시작하고 이달 14일 4.1%(닐슨코리아)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2%대의 KBS 2TV '해피투게더 스페셜', SBS '잔혹하고 아름다운 연예도시' 등을 제쳤다. 방송 3개월

만에 목요일 밤 11시대 최강자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는 기존 리얼버라이어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시어부'만의 색깔이 있어 가능한 성과이다. '도시어부'는 세 출연자가 각각 선정한 장소에서 낚시하는 내용이 전부다.

낚시의 특성상 '자연의 조화'와 상대해야 하는 포맷이어서 제작진이나 출연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 일이 많다. 대본도 따로 없다. 재미를 위해 자극적인 설정이나 억지스러운 연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순간을 이덕화와 이경규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소한 재미도 크게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바



채널A '도시어부'

추어'인 마이크로닷의 신선한 반응이 어색하면 서도 묘한 조화를 이룬다. 세 사람의 앙상블이 프로그램 인기의 핵심인 셈이다.

낚시 그 자체도 예능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긴다. 월적을 위해 대단한 집

중력을 보여주는 이덕화와 이경규의 모습은 기존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이덕화는 드라마에서 악역을 많이 맡았고, 이경규는 '버럭'과 '호통'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낚시를 통해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의해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어서 '힐링'을 원하는 시청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준다.

연출자 장시원 PD는 "낚시를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데 고민한다. 또 이덕화와 이경규, 마이크로닷 세 사람이 낚시를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은 힐링과 진정성을 담고 있어 이 부분에 시청자가 크게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송미 기자 bsm@donga.com

숫자뉴스

900회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 TV 연예통신'이 17일 방송으로 기록한 누적 방송횟수. '섹션TV 연예통신'은 1999년 5월9일 서경석·황수정이 MC를 맡아 '섹션TV 파워통신'으로 방송을 시작해 이날로 900회를 맞았다.

#해시태그 킷



소유-천명훈 미모 대결?

천명훈과 소유가 외모 대결에 나선 모양새다. 소유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천명훈은 "안 닮았.."이라고 팔짱을 흐린다. '달은골 남매'라는 많은 팬들의 반응에 부정하는 모습이다. 소유에게도 그다지 기분 좋은 칭찬은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천명훈의 하얀색 긴 귀걸이가 소유보다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성스러운 천명훈이 소유의 미모를 넘보고 있다. 백송미 기자

#스포츠동아 #천명훈 #소유 #달은골 #어디가달았나

신작 한국영화 '빅3' 해부...당신의 취향은? ▶▶▶

'기대작'이란 수식어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영화들이다. 12월 '한국영화 빅3'가 저마다 매력적인 이야기로 관객을 찾는다. 소재와 배우들의 연기, 연출은 물론 완성도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어느 한 편만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 연말연시 느긋하게 세 편을 전부 보려는 관객이 아니라면 각각의 강점을 살펴 취향대로 고르는 과정은 필수다. 세 영화의 줄거리와 감점 그리고 어떤 취향의 관객에 어울릴지 소개한다.

'강철비' (감독 양우석)



북한 쿠데타 시뮬레이션...소름돋는 현실 접근

●어떤 이야기? ... 남한 정권 교체기,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세력 제거 명령을 받은 정예요원 엄철우(정우성)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와 남한으로 내려온다. 북한은 곧 선전포고를 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광철우(곽도원)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엄철우와 움직인다.

●불만해? ... 남북한이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작품. 한반도 핵전쟁 위기 때 미국과 일본,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엿보는 시뮬레이션이 실감난다. 보고나면 끔찍어 생각할 게 더 많고,

두 번 보면 전율이 배가되는 영화. '슬픈 눈'의 정우성과 '소년 같은' 엘리트 광도원의 호흡은 최근 등장한 한국영화 '투름' 가운데 단연 최고다.

●취향저격 포인트 ... 영화와 현실을 연관짓길 즐겨하는 관객에게 안성맞춤. 연일 불거지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이슈가 불려올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보는 기회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14일 개봉해 첫 주 흥행 1위에 올라 경쟁의 우위도 점했다. '빅3'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만큼 '뻔하지 않은 결말'을 원한다면 고민 없이 선택하시길.

7개 지옥과 7번의 재판...저승 관광 어때?

●어떤 이야기? ... 화제 현장에서 죽은 소방관 김자홍(차태현) 앞에 저승에서 온 차사 강림(하정우)과 해원택(주지훈), 덕춘(김향기)이 나타난다. 저승법에 따라 김자홍은 7개의 지옥을 거치며 삼차사의 도움 속에 재판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홍과 그 동생(김동욱)의 아픈 사연이 드러난다.

●불만해? ...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사후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주인공들이 거치는 7개의 지옥을 대형 스크린에서 감상하는 것 자체로 '저승 관광'의 스펙터클을 맞볼 수 있

다.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지옥을 하나씩 거치자니, 웬지 착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마음도 생긴다. 지옥 판타지 보러 갔다가 괜히 '효도하고 살자'고 다짐하게 만드는 영화.

●취향저격 포인트 ... 젊은 관객의 선호가 높은 판타지 장르이지만 정작 개봉하고 나면 중장년 관객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까운 누군가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이들이라면 영화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는 겨울방학 가족영화로도 손색없다. 뒤편 뒷극장을 나서면서 '교훈' 하나씩은 안고간다.

'신과함께-죄와벌' (감독 김용화·20일 개봉)



대학생이 죽었다...가슴 뜨거웠던 6월항쟁

●어떤 이야기? ... 1987년 1월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죽자 대공 수사처장(김윤석)은 은폐를 시도한다. 검사(하정우)와 기자(이희준), 교도관(유해진)과 재인사(설경주)는 각자 위치에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움직인다. 그렇게 거세지는 대학가 시위대 앞에 연세대생 이한열(강동원)이 선다.

●불만해? ... 분명 극영화인데 흡사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기분. 1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허구의 캐릭터는 87학번 신입생을 연기한 김태리가 유일하다. 마땅히 짚어야 할 역사를 부활시키겠다는 감독의 책임감마저

느껴지는, 1987년을 향한 헌사. 관객이 기대하는 이야기와 장면, 메시지 어느 것 하나 빠놓지 않고 담아낸 '진절할' 영화이기도 하다.

●취향저격 포인트 ... 1987년을 직접 겪으면서 가슴 뜨거웠던 경험을 해본 관객이라면 공감백배. 그 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작품이다. 이젠 중년이 된 80년대 학번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꽃미남 배우 강동원이 이한열 열사를 연기하며 만들어낸 일부 허구의 이야기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

'1987' (감독 장준환·27일 개봉)



'한류의 제왕' 슈주, 다시 해외로

8집 '플레이' 활동 마감 후 월드투어 시작 내년 1월 싱가포르·태국·홍콩 등서 슈퍼쇼

슈퍼주니어가 '한류의 제왕'으로 다시 글로벌 활동에 나선다.

최근 8집 '플레이' 방송활동을 마친 슈퍼주니어는 월드투어로 새해 활동의 포문을 연다. 11월 슈퍼주니어는 2년 만에 야심 차게 컴백한

후 몇몇 악재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이내 12년차 내공의 '베테랑 아이돌'답게 어려움을 차분히 이겨나가고 있다.

'한류의 제왕'으로 다시 내딛는 첫 걸음은 '슈퍼쇼' 콘서트. 15~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슈퍼주니어 월드투어-슈퍼쇼 7'(슈퍼쇼7)를 성황리에 마친 슈퍼주니어는 새해 '슈퍼쇼7'을 해외 여러 나라에 소개한다. '슈퍼쇼'는 2008년 시작한 콘서트 브랜드로,

해외시장에서 케이팝의 인기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콘서트로 평가받는다. 2015년 '슈퍼쇼6' 이후 2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해외 팬들의 기대도 크다.

슈퍼주니어는 1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홍콩 등지에서 '슈퍼쇼'를 연다. 현재 다른 나라들과도 공연 개최를 논의하고 있어 '슈퍼쇼7'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에서 '슈퍼쇼'를 진행할 때마다 매진을 기록해온 만큼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서울 공연도 2년 만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높았

고, 당초 2회에서 1회를 추가했다.

슈퍼주니어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린 서울 공연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앨범의 타이틀곡과 히트곡 위주로 무대를 꾸며 팬들의 호응을 더 이끌어냈다. 또 멤버별 솔로 무대에서 저마다 제창, 드럼 연주, 댄스 등을 선보였다. 컴백을 앞두고 '반려견 사고'로 8집 활동에서 제외됐던 최시원도 서울 공연부터 합류했다. 최시원은 공연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다. 고맙다. 노력하는 최시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김원겸의 음담잡담

특색있는 지상파 3사 송년행사 '그래미'처럼 한번에 할 수 없나

올 연말에도 지상파 3사가 각기 한 해 가요계를 결산하는 음악축제를 마련한다. 25일 SBS '가요대전'을 시작으로 29일 KBS '가요대축제', 31일 MBC '가요대제전'이 개최된다. 한 해 높은 성과를 이룬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자리여서 참여하는 가수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연말축제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가수들도 많다.

연말축제는 평소의 음악방송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별 가수들의 무대가 주류를 이루지만 다른 가수와의 협업 무대, 선배에 대한 헌정무대 등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 특별한 무대는 별도의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 가수 측은 "스페셜 무대 하나를 기획하고 연습하는 데 꼬박 2~3일은 소요된다"고 말한다. 3사에 모두 출연하면 일주일의 넘는 시간이 소비된다.

송년행사가 많은 12월은 가수들에게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콘서트 준비, 밀린 CF촬영, 해외 행사 등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수면 시간도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연말축제 준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상파 3사 음악축제 출연자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3사는 각기 스페셜 무대를 준비하지만, 출연자들이 엇비슷해 시청자들은 크게 변별력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연말 축제를 준비하는 가수들도 힘들고, 시청자들도 비슷한 쇼를 연말 황금시간대에 사흘간 보게 되는 셈이다.

평소 가수 측은 지상파 3사가 연합해 단 한 번의 성대한 축제를 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품어왔다. 3사가 번갈아가면서 주관 방송사로서 출연자를 섭외하고, 무대연출도 맡는 방식이다. 지상파 통합 축제가 만들어진다면 행사의 권위도 높아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가수들의 자제도 달라질 것이다. 지상파 통합 축제를 자연스럽게 통합 시상식으로 발전시킨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그라미'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기자